



꽃나들이 나선 병아리처럼 노란 빛깔이 고운 생강나무꽃. 진달래보다도 먼저 피어나 붉어 왔음을 알리는 꽃이다. 일어나어린 가지들 비비면 청명한 생강새가 난다.



군락을 이룬 조릿대. 산행 들머리부터 끝날 때까지 만날 수 있어 시원한 눈맛을 만끽할 수 있다.



화란봉 쪽에서 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거리. 2000여 가구가 산자락 이곳저곳에 기대어 산다. 밭농사가 많아 산 마을치고는 소목이나 삼림이 넉넉하다고 한다.

꽃물결 흐드러진 봄산...생명이 넘치네

백두대간 속으로

< 33 >

삼당령 → 화란봉 → 닭목재

화란봉 기슭 얼레지 수줍게 눈인사

삼당령~석두봉 푸른 조릿대 숲 장관

다 시 삼당령(670m)이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과 정선군 임계면을 잇는 35번 국도상의 고갯마루다. 이곳에서부터 석두봉과 화란봉을 지나 닭목재에서 끝나는 백두대간 산행은 꽃노래를 불러도 좋을 만큼 편안하다. 심하게 휘어질까 해도 오르내림은 가파르지 않다. 강릉시 왕산면의 살뜰한 관리로 등산로도 선명할 뿐 아니라 연극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산불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화선이 대간의 머무를 지나기 때문이다.

그대로 석두봉은 머리에 바위를 올려놓고 있다. 이곳에서 한 바퀴 휘 둘러보는 눈맛이 꽤나 근사하다. 석두봉에서 내려서면 이내 헬기장이 나타난다. 그곳을 지나 북쪽으로 허리를 뜨는 봉우리까지는 능선 일대가 구름에 가까운 험곡인데 은총 조릿대 밭이다. 험한 산나루와 우람한 소나무 아래로 펼쳐지는 조록의 물결이 초원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북쪽 기슭이나 산 그림자가 짙은 곳에는 아직도 드문드문 잔설(殘雪)이 눈에 띈다. 그래도 나무 밑동 가까이만은 등골계 원을 그리듯 맨땅이 드러나 있다. 눈으로 느끼는 생명의 온기다. 석두봉을 지나 큰 봉우리 두 개를 넘은 대간은 완전히 서쪽으로 허리를 뺀다. 힘겹히 이어지는 산줄을 너머로 화란봉(1069.1m)이 우뚝하다. 난초 꽃처럼 예쁜 봉우리라 하기에 험듬어도, 기묘한 모양

으로 놓인 정상부의 바위는 한참 동안 눈길을 붙들어 둔다. 화란봉 오르기 전 홀로 꽃을 피워줄린 얼레지가 눈인사를 건넨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으나 친한 자주색 꽃잎은 하늘로 솟구쳐 있다. 한복 땀이 좋은 여인이 살갗이 들어올린 치맛자락을 하늘거리며 걸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꽃말이 글베, 바람난 여인 이란다. 그림 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다. 화란봉을 지나 알짜감치 허룻몸을 누일 자리를 찾았다. 어둠보다 먼저 구름이 물러온다. 보름인데도 폭한 달구경은 커녕 바깥을 어슬렁거리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화란봉에서 닭목재로 내려서는 길은 동네 뒷산 분위기가. 밭갈음도 멀쩡거리듯 거뭇다.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반가이 맞아

줄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강릉에서 대거리로 남나드는 고갯마루인 닭목재(680m) 직전에는, 그냥 행하니 지나치기 힘든 멋진 소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아름드리라는 아니지만 공들여 가꾼 것이 분명해 보이는 늘씬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들어올리고 있다. 강원도 금강송의 비탕 모습을 볼 수 있는 숲이다. 닭목재에서 배낭을 내려 놓는다. 이보다 더 편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왕산의 근심 걱정도 이렇게 내려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많이 오는 때에는 강릉에서 겨울을 난다는 대거리 사람들이 모여 길 양편의 나뭇잎을 치우고 있다. 힘부러 버린 담배꽂이가 산별로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 못지 않은 씩씩함이 마음 한 귀퉁이를 어둡게 한다. 왜 우리는 아직도 담배꽂이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일부러 좋은 길을 버리고 송천(松川)을 따라흐르며 구절리로 향한다. 거의 오염되지 않은 원시에 가까운 비경이 구비구비 펼쳐진다. 백두대간이 우리에게 덤으로 준 선물이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글=윤재식(사진작가)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하루가 다르게 산색이 변하고 있다. 진달래 꽃들은 다투어 산꼭대기로 번지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산벚꽃도 흐드러지기 시작했다. 점점 노란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 생강나무는 봄나들이 나온 병아리처럼 고운데, 그 아래로는 경충한 목에 하얀 꽃을 피워올린 노루귀가 병병에 즐고 있다. 이렇듯 봄 산은 저마다 빛나는 생명들로 약동한다. 그런데, 이 활달한 생명의 나래 짓과는 반대로 조용히 스러지는 것들이 있다. 이른 바 살해목(毒害木)이다. 그 중에서도 부러진 소나무 가지가 유독 눈에 띈다. 아직 푸르름을 잃지 않은 때문이라. 눈길을 들어올려, 한때 그 가지를 자신의 일부로 삼았을 나무를 찾아본다. 아름은 죽어 되어 보일 정도로 우람하다. 그 순간, 강렬하게 떠오르는 한 생각이 머리를 흔들여 놓는다. 살해목(毒害木)이라. 안 될 말이다. 결코 눈(눈)은 나무를 해치지 않았고, 나무 또한 눈에 상처 입지 않았다. 그것은, 키를 울리기 위해 저절로 도태되어야 할 가지를 내려 놓는 지극히 자연스런 자연의 순환 과정이다. 이를 어찌 '살해(毒害)'라 할 수 있을까. 모질고도 절건 인간중심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번의 높낮이 조절 및 설치, 해체가 용이하고 바람에도 지탱되도록 설계"

꽃아래 번(7번) 50cm x 100cm
아이바 번 50cm x 200cm
인로왕 번 50cm x 200cm
오랑 번(5번) 50cm x 200cm
살신 번(10번) 50cm x 200cm
보고 번 50cm x 200cm
지장 번(10번) 50cm x 200cm
화야 번 50cm x 200cm
원왕 번 50cm x 200cm
서양 번(10번) 50cm x 200cm
서양 번(10번) 50cm x 200cm

번의 글씨체는 불·보살의 상호와 같으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佛敎傳統儀式具

전통번 제작기법 그대로를 재현한 화제작

佛·菩薩의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과 연(幢)은 우리 불교 문화예술의 꽃이며, 전통적인 불교장엄의식의 한 형태로서 불가의 일상생활에서 법회나 각종 재를 지내고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장엄한 불교문화 유산입니다. 靈山齋保存會에서는 전통의식구 그대로를 재현한 장엄일체를 보급운동하오니 이 기회에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 차인공 합장

장엄 의식구 자료가 필요하면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법회 · 낙성식 · 49재 · 천도재 · 예수재 영산재 · 수륙재 · 각종 영사

작은공간 장엄사나 장소이동시 편리하도록 조합형으로 설계